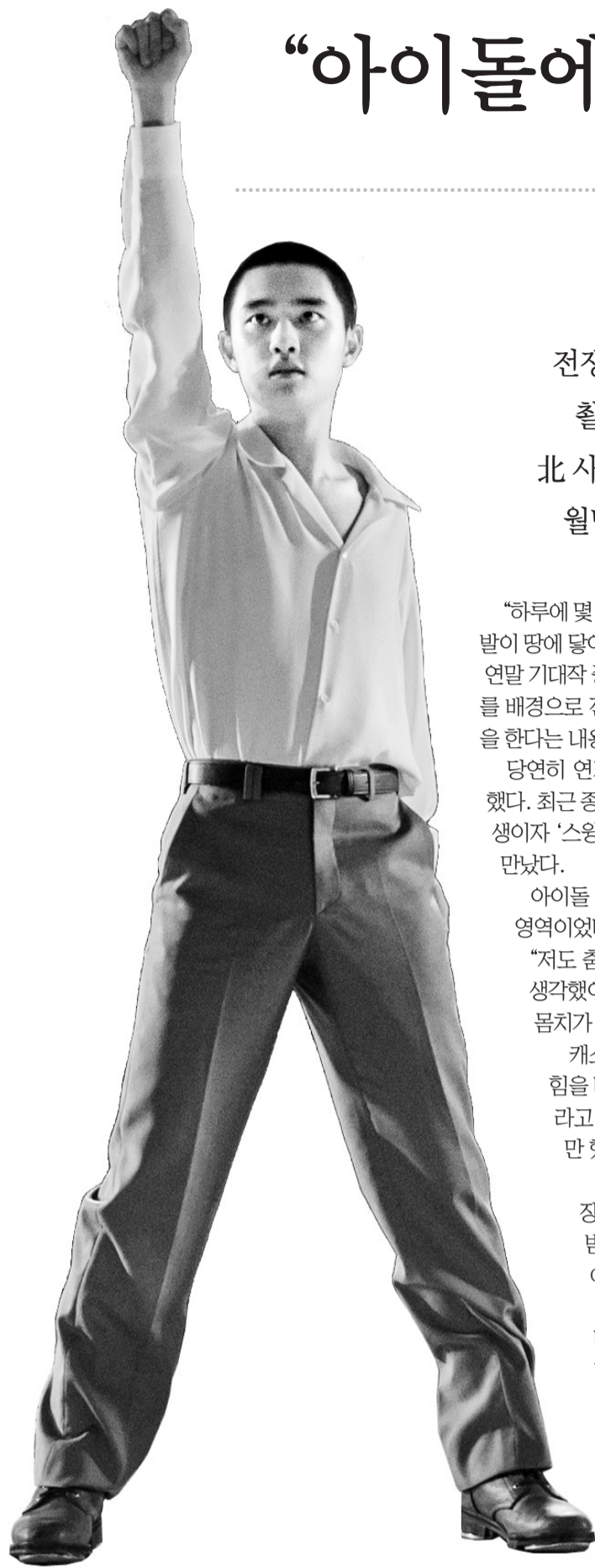


“아이돌에게도 탭댄스 힘들던데요”

영화 '스윙키즈' 메인 댄서 '로기수' 역 **도경수**



전쟁포로 탭댄스팀 성탄절 공연 이야기 촬영 5개월 전부터 틈만 나면 춤 연습 北 사투리 구사 위해 전담 선생님과 연구 월말 엑소로 컴백... 내년 2월엔 콘서트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했느냐고요? 하루에 몇 시간이 아니라 발이 땅에 닿아있는 순간에는 항상 탭댄스를 연습했습니다.” 연말 기대작 중 하나인 '스윙키즈'는 1951년 거제도 포로수용소를 배경으로 전쟁포로들이 탭댄스팀을 구성해 크리스마스 공연을 한다는 내용이다.

당연히 연기자들은 촬영에 들어가기 전 탭댄스를 체득해야 했다. 최근 종로구 팔판동의 한 카페에서 북한군 전쟁 영웅의 동생이자 '스윙키즈' 팀의 메인 댄서 '로기수' 역을 맡은 도경수를 만났다.

아이돌 그룹 엑소 멤버인 그에게도 탭댄스는 전혀 새로운 영역이었다고 한다.

“저도 춤을 추는 가수니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장르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정말 저도 몸치가 됐어요.”

캐스팅이 확정되고 촬영에 들어가기 전 5개월간 죽을 힘을 다해 탭댄스를 연습했다고 한다. 하루에 몇 시간이라고 정해놓지 않고 시간이 날 때면 무조건 탭댄스 연습만 했다고.

“영화를 보면 로기수가 잘 때도 탭댄스를 떠올리는 장면이 있는데 저도 그랬어요.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 할수록 탭댄스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빠져들면서 재미를 느끼게 됐죠.”

탭댄스의 동작도 어려웠지만, 소리를 내는 것이 더 어려웠다고 한다. 구두로 바닥을 내리쳐 소리를 내야 하는 데 정확히 리듬을 밟지 않으면 소리가 빠져버린다고.

북한군 포로라는 설정상 북한 말투도 몸에 익혀야 했다. 전담 코치를 따로 두고 북한말을 연습한 덕분에 극 중 만주 출신인 양만래(박혜수 분)와 북한말로 말다툼을 벌이는 장면

도 맛깔나게 표현해냈다.

당연히 북한 사투리가 익숙하지 않았고 들을 기회도 많지 않았는데 선생님하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대사 말고도 평소 선생님이 하는 말투를 잘 들으면서 특유의 어투를 따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본인의 연기 스타일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배우는 편”이라고 말했다.

“가수를 먼저 시작하기는 했지만, 항상 연기 도전을 생각했어요. 제 연기를 잘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연기 스타일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배우는 편”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팬텀', '사랑이야'라는 드라마를 촬영할 때 마지막회에서 조인성 선배의 눈을 보면서 연기했어요. 제가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그때는 정말 울컥하는 감정에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연기자 중 특별한 롤모델은 없다고 한다. 하고 싶은 장르나 역할도 생각한 적이 없다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작품이라면 무엇이든지 해보고 싶다고 한다.

올해 도경수는 '스윙키즈' 이전 쌍천만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에서 관심병사 '원동연' 역을 맡아 주목받았다. '신과 함께' 시리즈의 후속편이 제작될 경우 도경수가 주연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도경수는 “후속편이 제작된다면 꼭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언제 찍을지 모르겠지만 저야 불러주시면 무조건 해야죠. 김용화 감독님과 함께하면서 배운 게 정말 많았어요. 말로 디렉팅을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연기를 보여주는 분이거든요. 현장에서 선배들에게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도경수에게 친정이라 할 수 있는 엑소는 곧 컴백을 앞두고 있다. 연말 무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고 내년 2월 콘서트도 준비돼 있다. 연기를 병행하는 만큼 가수와 배우라는 1인 2역을 소화해내야 한다.

“물론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은 힘들죠. 하지만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제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거든요. 무대에 설 때와 연기할 때 모두 행복을 찾는 것이 스트레스를 날리는 비결이죠.”



퀸 내세운 'MBC스페셜' 시청률 '퀸'

영화 신드롬 분석...3.6%로 10개월만에 최고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돌풍이 안방극장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퀸을 다룬 MBC TV 시사교양 프로그램 'MBC스페셜' <사진>이 10개월만에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11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스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10분 방송한 'MBC스페셜' 시청률은 3.6%를 기록해 지난 2월 22일(5.0%) 이래 최고치로 집계됐다.

부제를 '내 심장을 할 Queen(퀸)'으로 내세운 전날 방송에서는 대한민국을 삼켜버린 '보헤미안 랩소디' 신드롬을 분석했다.

방송에는 재관람 열풍부터 팬들의 각종 사연, 라디오 DJ 배철수와 음악 평론가 임진모의 분석, 영국 런던의 프레디 머큐리 저택 스케치 등이 생생하게 담겨 시청자 눈을 끌었다. MBC TV는 지난 2일에도 퀸의 1985년 콘서트를 100분으로 편집해 방송하는 등 퀸 열풍을 심분 활용 중이다.

/연합뉴스

정조국-김성은, 첫 부부예능

광주FC에서 '득점왕'으로 활약했던 축구선수 정조국-배우 김성은 부부가 결혼 10년 만에 tvN '따로 또 같이'로 처음 부부 예능에 출연한다고 김성은 소속사 미스틱엔터테인먼트가 11일 밝혔다.



정조국(왼쪽)·김성은 부부

'따로 또 같이'는 같은 여행지에서 따로 여행을 즐기는 부부 모습을 담은 관찰 프로그램이다. 부부는 대만으로 함께 떠나 따로 여행할 예정이다. 2009년 결혼한 둘은 아들과 딸을 뒀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찬란한 밥상 스페셜	35 닥터 365 40 감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차탈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붉은 달 푸른 해(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죽어도 좋아(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붉은 달 푸른 해(재)	00 SBS 12 뉴스 25 만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테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의별 중계 50 공룡 메가드	00 다큐멘터리 3일(재)	30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00 뉴스브리핑
2	20 드래곤에그 50 전국노래자랑(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에어로비 55 내 사랑 치유기(재)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55 5 MBC 뉴스	00 접속! 무비월드(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스페이스 버스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15 실화탐사대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백중원의 골목식당(재)
7	00 KBS 뉴스 7 35 미니디Q	0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고향문록 남도에 살았었다 30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력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비켜라 운명아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실화탐사대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 '10' 55 UHD 슬터	00 죽어도 좋아	00 붉은 달 푸른 해	00 황후의 품격
11	00 오늘밤 김재동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옥탑방의 문제아들 1~2부	10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중원의 골목식당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함께사는 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가루 돼지고기 닭발과 콩 무생채)	17:30 꼬마버스 타요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페루 망기행 - 3부 세바체의 나라)	11:20 세계테마기행(재)	18:00 생방송 특!특! 보너스1~5
06:00 한국기행(재) (통영바다가 맛있는 이유 3부)	12:00 EBS 정오뉴스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 - 화산섬의 비밀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10 EBS 특별기획 <인생이 학교다>	19:30 EBS 뉴스
07:00 울감한 소방차 레이	1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9:50 메디컬 다큐 - 7요일
07:30 꼬마버스 타요	13:40 EBS 특별기획 <시대와의 대화>	20:40 세계테마기행 (가이드북에 없는 베트남 3부 아름다운 속의 눈물)
08:00 당동명 유치원1~2	14:30 코코몽3	21:30 한국기행 (극박기행 3부 인어 엄마와 섬집 아이들)
08:30 미니특급대 X	15:15 출동! 피자마 삼총사	21:50 EBS 다큐프라임 (진화와 공존의 섬 갈라파고스)
08:45 팔팔라 뿌우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22:45 극한직업
09:00 엄마 까투리	16:15 울감한 소방차 레이	23:55 EBS 초대석
09:30 원더볼츠	16:30 팔팔라 뿌우(재)	
09:40 글로벌 아바 찾아 삼만리	16:45 당동명 유치원1~2(재)	
10:30 한국기행(재)	17:15 엄마 까투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2일(음 11월 6일 戊寅)

<p>子 36년생 여과하지 않으면 부담스러움을 면치 못한다. 48년생 필연적이라면 적극 나서서 것이 마땅하다. 60년생 조심스럽게 내리는 것이 안전하다. 72년생 어렵치고 한 일이 우연히도 잘 들어맞을 수다. 84년생 도움 되는 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51, 25</p>	<p>午 42년생 길상이 깨끗하면서도 맑은 기운으로 들어온다. 54년생 처세를 원만하게 하면 행운이 따르게 되어 있으나. 66년생 현실적 감각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 78년생 전체적인 국면을 인식하고 종합적으로 고찰하자. 90년생 절제가 꼭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85, 66</p>
<p>丑 37년생 옹고 그릇에 대한 분별이 명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49년생 긴히 상의해야 할 일이 생긴다. 61년생 빨리 포기할수록 손해를 줄인다. 73년생 신중하게 처리하면 상당한 재물을 얻을 수도 있으나. 85년생 뜬 구름 잡지 말고 현실로 돌아오라. 행운의 숫자 : 15, 63</p>	<p>未 43년생 만전을 기한 후에 임하는 것이 낫겠다. 55년생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의문스러운 점은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확인하도록 하라. 67년생 의사 표시가 분명해야 한다. 79년생 용기가 있어야 한다. 91년생 악담 끝은 없어도 덕담 끝은 있으나. 행운의 숫자 : 84, 62</p>
<p>寅 38년생 규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좋다. 50년생 역량을 강화하자. 62년생 만도가 갑자기 변해버릴 수도 있다. 74년생 소신껏 행한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니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라. 86년생 연장선상에서 이해해도 전혀 무리는 없겠다. 행운의 숫자 : 90, 34</p>	<p>申 44년생 처음에는 어려우나 점점 쉬워질 것이다. 56년생 변화의 조짐이 예상되니 철저히 대처하라. 68년생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기로에 서게 되리라. 80년생 완벽하게 합치기 위한 힘을 것이다. 92년생 예감하여 왔던 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행운의 숫자 : 32, 89</p>
<p>卯 39년생 호조를 띠면서 진척을 보이겠다. 51년생 참으로 기쁜 일이 생기게 되는 날이구나. 63년생 구원으로 인한 업보가 깊으리라. 75년생 기세가 등등하니 웬만해서는 도저히 당해내지 못 하겠다. 87년생 변동시키려 하지 말고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 행운의 숫자 : 20, 57</p>	<p>酉 45년생 표준과 전형에 따르는 것이 무난하겠다. 57년생 우려했던 바가 계기가 되어 더 잘 될 수이다. 69년생 근본적으로 상호 결부되어 있음을 알자. 81년생 여긋날 수도 있으나 사전에 대비해야한다. 93년생 발언하기가 껍 속스러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5, 75</p>
<p>辰 40년생 단 번에 끝내려 한다면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52년생 깊은 인연이니 중히 여기는 것이 길운을 부른다. 64년생 신은 결코 행동하지 않는 자를 듣지 않는 법이다. 76년생 풍성한 결실의 밑거름이 되리라. 88년생 천 우신조로써 대결하는 운세이다. 행운의 숫자 : 93, 41</p>	<p>戌 34년생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높다. 46년생 찬스는 자신만을 기다려 주지 않을 것이니. 58년생 대체로 순조로운 편이나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70년생 과정은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결과가 양호하리라. 82년생 실제적인 활용 가치에 주목하라. 행운의 숫자 : 55, 45</p>
<p>巳 41년생 시정하는 것이 좋다. 53년생 우려해 왔던 형세가 진행되기 시작한다. 65년생 실행해 두고 보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추진제가 될 수도 있다. 77년생 직접 확인하라. 89년생 맹점만 보완한다면 이전보다 훨씬 나은 국면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0, 56</p>	<p>亥 35년생 밤심하여 내버려 둔다면 골치 아프게 할 것이니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47년생 공동으로 행하는 것도 괜찮다. 59년생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71년생 행운의 빛이 비추고 있으나. 83년생 중요한 지경에 이르렀다. 행운의 숫자 : 79, 74</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사랑” ☎010-9790-8237